

# 스웨덴의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책임법규 및 리사이클링 현황

## 스웨덴 백조마크 탄생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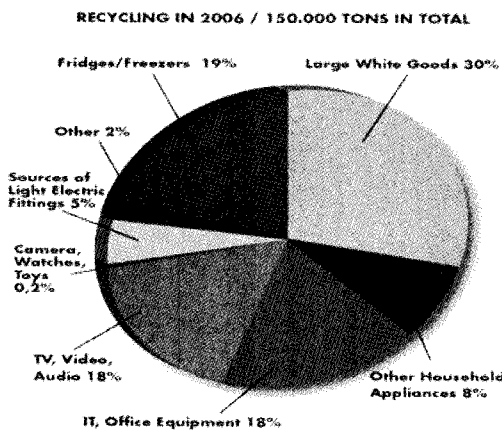
스웨덴 사람들은 일찍부터 환경의식이 발달하여 이미 지난 1990년에 환경마크인 백조마크를 탄생시킨 바 있으며, 2001년에는 EU의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법규인 'WEEE'보다 훨씬 앞서 스웨덴의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법규를 제정하여 리사이클링을 생활화 해오고 있다.

## 전기전자제품 리사이클링 현황

2006년 스웨덴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은 총 15만톤으로 국민 1인당 16.4kg이 처리되어 세계 최대치를 기

록했으며 EU평균치인 1인당 4kg 보다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EI-Kretsen의 Mr. Jan-Olof Ericsson 회장에 따르면 백색가전이나 컴퓨터, TV 등 덩치가 큰 제품들은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수거장에서도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USB메모리, 마우스, 핸드폰 등 소형 전자제품들은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일반 소형 전자제품으로 통합 수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소형 전자제품도 카테고리별 분리수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 〈최근 3개년간 스웨덴의 전기/전자제품 리사이클링 현황〉

(단위: 톤)

구 분	2004	2005	2006
대형가전	36,800	36,300	45,500
기타 가정용기기, 수공구, 정원용기기	10,200	12,300	11,900
IT제품, 사무용기기, 전화기	17,700	22,700	27,600
TV, 비디오, 오디오	15,700	21,000	26,300
카메라, 시계, 완구	200	300	300
형광등	5,800	6,700	7,900
기타	900	2,200	2,400
냉장/냉동고			
EI-Kretsen 수거	0	10,500	28,000
코문 수거	25,000	14,500	
총계	112,300	126,500	149,900

자료 : EI-Kretsen